

‘국가대표 총출동’ 전국수영대회…광주·전남 선수들 빛났다

시체육회, 정다연 4관왕·김승현·김지옥·최강인 등 다이빙 강자 입증
광주 유덕중 이선영 3관왕·전남 오성초 김하울 2관왕 등 꿈나무 활약

‘한국 수영강관’ 황선우·김우민·김영범 등 국가 대표가 총출동한 광주 전국 수영 선수권대회가 성료 됐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광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4회 광주 전국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 황선우(강원도청)는 개인혼영 200m에서 1분59초05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황선우는 접영 100m에서도 52초34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황선우의 주종목은 자유형 100m와 200m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접영 100m와 개인혼영 200m만 출전했다. 3관왕 기록을 세운 김영범(강원도청)은 계영 800m를 양재훈, 김민준, 윤지환과 7분23초23으로 호흡해 내며 금메달을 따냈다. 계영 400m에서는 김민준, 김성주, 윤지환과 3분21초15로 경기를 마치며 1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100m에서도 47초85로 1위를 기록하며 3관왕이 됐다. 김우민(강원도청)도 자유형 100m와 200m에 출전해 자유형 200m질주를 1분45초85로 가장 먼

저 마치며 1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100m에서는 49초23로 김영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광주·전남 선수들은 대회 4개 종목(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중 아티스틱스위밍을 제외한 3개 종목에 출전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체육회, 광주체중고 등 44명이, 전남에서는 여수한려초, 목포신흥초 등 24명이 경기에 나섰다. 광주시체육회 선수들은 다이빙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냈다. 정다연은 4관왕에 등극했다. 정다연은 1m 스프링(223.85점)과 3m스프링(239.30점)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승현과 호흡을 맞춘 3m싱크로(238.36점)와 플랫폼 싱크로(81점)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하며 4관왕 주인공이 됐다. 김승현도 3m 싱크로, 플랫폼 싱크로 금메달에 이어 3m스프링에서도 224.25점을 받으며 정다연

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김지옥은 1m스프링(341.50점)과 최강인과 합을 맞춘 플랫폼 싱크로(333.06점)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다. 3m스프링 다이빙과 플랫폼 다이빙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광주 유덕중 이선영은 3관왕에 올랐다. 이선영은 1m스프링(175.25점), 3m스프링(193.60점), 3m싱크로 플랫폼(189.25점)에서 모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에서도 광주 선수들의 메달이 나왔다. 효덕초 박정연은 평영 50m에서 2위를, 광주중 이재원은 배영 50m에서 2위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화순 오성초 김하울이 남자 초등부 평영 50m와 100m에서 1위에 올랐다. 여자 초등부 자유형 50m에서는 여수한려초 김루아가 1분21초8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루아는 올해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초등부 자유형 50m 은메달리스트다. 김루아는 배영 50m에서 동메달을 더했다. 수구 종목에서 남자일반부는 전남체육회가 2위를, 남부대가 3위로 경기를 마쳤다. 남자고등부에서는 전남체고가 3위를 기록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정다연



유덕중 이선영

‘장타여왕’ 이동은, 메이저 킨 되다…한국여자오픈 우승

장타·그린 적중률 1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장타여왕’ 이동은이 메이저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냈다. 이동은은 15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제39회 DB그룹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데뷔한 이동은은 KLPGA 투어 42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DB그룹 한국여자오픈은 KLPGA 투어 5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하나이며 KLPGA 챔피언십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여서 한국 여자 골프 최고 권위의 대회로 여긴다.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은 이동은은 상금랭킹 3위(4억9954만원)로 올라섰고 대상 포인트 순위도 9위로 상승했다. 이동은은 신인인 지난해부터 남다른 장타력을 주목받았던 기대주였다. 방신실, 윤이나에 이어 장타 3위였던 이동은은 올해는 장타 부문 1위를 내내 달리고 있다. 이동은은 KLPGA 투어에서 드라이버를 멀리 때려 놓고 그린 가까이에서 웨지나 쇼트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하는 이른바 ‘밤 앤드 가우지’

(Bomb and Gouge)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다. 그린 적중률도 높다. 신인이던 작년에는 10위였고 올해는 1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와 SK텔레콤·SK쉴더스 챔피언십 등 두차례 준우승으로 신인왕 포인트 2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앞서 11개 대회에서 네 번 톱10에 입상해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선수로 꼽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퍼팅까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동은의 부친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프로 출신이고 어머니도 KLPGA 프로 경력을 지닌 골프 가족의 일원이다. 부모 모두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한(恨)을 딸이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풀어준 셈이다. 최종 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1타차 2위(12언더파 276타)에 오른 김시현은 7일 전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데 이어 2주 연속 2위를 차지했다. 2언더파 70타를 친 황유민은 5타 차 3위(8언더파 280타)를 차지했다. 2004년 송보배 이후 21년 만에 한국여자오픈 2연패에 도전했던 노승희는 1오버파 73타를 쳐 4위(7언더파 281타)에 만족해야 했다.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 이예원도 이날 1오버파 73타를 쳐 23위(3오버파 291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장타여왕’ 이동은이 15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DB그룹 한국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DB그룹 한국여자오픈 조직위 제공>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전남체육인과 지방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

지방체육회 자립성 확보·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약속

전남 체육인들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체육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유 회장과 전남 22개 시·군체육회장, 72개 종목단체장 등이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 회장의 2025 상반기 17개 시·

도 체육회 순회 간담회 마지막 일정으로, 대한체육회 현안을 소개하고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 회장은 의전 청취에 앞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 선수·지도자간 연계를 위한 ‘스포츠커넥트’ 시스템 도입, 학교체육 활성화와 프로젝트,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대한체육회의 한국 체육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

했다. 전남 체육인들은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대책 마련과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지도자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과 군비 100%로 이뤄지는 지역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지방체육이 강해져야 대한민국 체육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현장의 의견을 정리해 대한체육회 자체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애물도 거뜰”…전웅태, 문체부장관기 5종 우승

“첫 장애물 완주에 자신감 생겨”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웅태(광주시청·사진)가 문체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웅태는 15일 해남 우ש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남자 일반부 5종 결승에서 총 합계 1601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웅태는 펜싱 278점, 수영 311점, 장애물 경기 331점, 레이저런(육상+사격) 681점으로 총점 1601점을 얻었다. 특히 펜싱과 레이저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2위 김경환(국군체육부대·1545점)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전웅태는 방준서와 함께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펜싱 472점, 수영 594점, 장애물 경기 691점, 레이저런 1293점으로 총점 3050점을 얻어내며 은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는 승마에서 장애물 경기로 종목이 바뀐 뒤 처음 시행되는 5종 시합으로,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한 근대5종 장애물 경기장에서 열렸다. 근대5종 장애물 경기는 벽과 수직 로프 타고 오르기, 공중에 달린 고리를 잡고 이동하는 방식이다. 전웅태는 “장애물 연습 기간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시합 때 잘 된 것 같다. 연습 때도



완주를 못했는데 시합 때 처음 완주를 해서 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제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 최종 선발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대표는 9월(1차)과 11월(2차) 선발전전을 통해 확정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조선대,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서 금빛 발차기

김혜규 금·김병기 감독 우수지도자상…광주대도 선전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조선대와 광주대 선수들이 메달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끝난 ‘제60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조선대 김혜규가 남자대학부 -58kg급 겨루기에서 동의대 강민승을 1-0으로 이기며 금메달을 얻어냈다. 김혜규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이승우(조선대)는 남자대학부 +87kg 겨루기에

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요셉(조선대)도 -87kg급 은메달을 땀다. 광주대 이정민(-68kg급)과 김태용(-63kg급)은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대회 남자대학부 우수선수상은 김혜규, 남자대학부 우수지도자상은 김병기 조선대 태권도부 감독에게 돌아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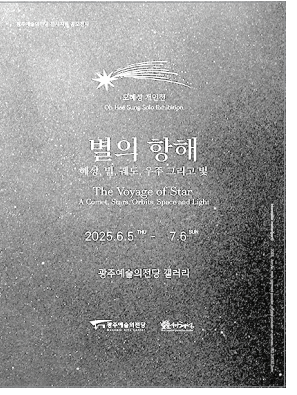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시립발레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일시 / 장소 :
2025-06-14(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6-21(토) 16:30, 19:00 / 생양근리공원
2025-06-28(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7-04(금) 19:00 / 교통문화연수원

문의 : 062-522-8716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별의 항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